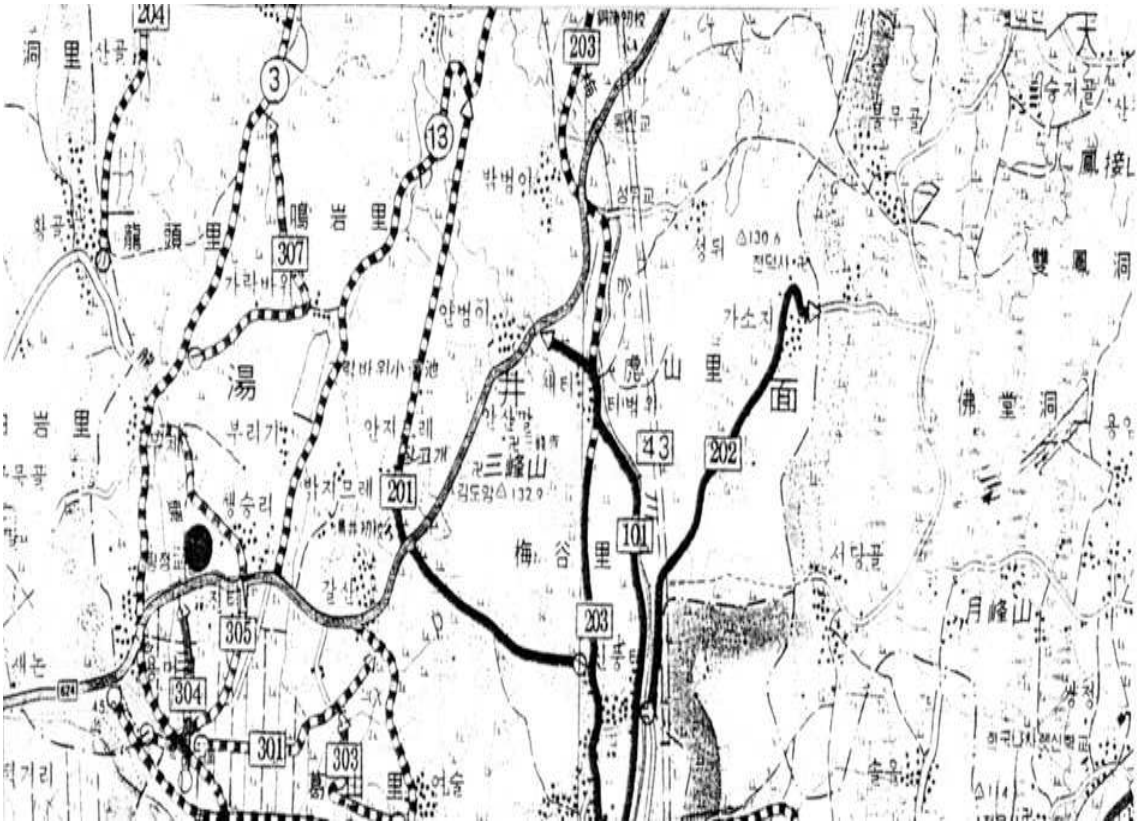
매곡리•梅谷里

매곡리는 탕정면의 한 마을로서 매곡 1리(맹골), 2리(신풍터), 3리(가소지)라는 세 개의 작은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총840명이며 261가구가 살고 있다. 매곡리는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앞에 큰 들이 있으므로 매골, 변하여 맹골 또는 매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풍리, 가소리, 산직리, 계곡리를 병합하여 매곡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매곡리 위치도>



⊠ 맹골, 신풍터, 가소지 마을

매곡1리 맹골은 앞에 큰 들이 있으므로 매골. 변하여 맹골 또는 매곡이라고 한다. 얼마전까지 거북놀이라는 독특한 풍속놀이가 행해졌던 곳이다.

신풍터는 매곡 2리의 총칭으로서 옛날 다른 마을은 흉년이 들어도 이 마을만은 풍년이 들어 풍년이 자주 든다 해서 신풍터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은 특히 포도의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가소지는 매곡리 3구의 총칭으로서 그 유래는 이렇다. 지리학자가 평택에서부터 맥을 집어 가며 따라가다 보니 천하 대지가 나와 그곳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 하여 맥을 찾아오다 매곡리 3구에서 맥이 끊어져, 알고 보니 큰 벼슬이 아닌 병사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무릎을 치며 '가히 우습구나'(가소롭구나)하여 그 이후로 이름이 가소지가 되었다고 한다. 주위에 천덕사라는 500여년이 넘은 절이 있다. 또한 90세 되는 노인이 20여분이나 되는 장수 마을이기도 하다.

<조사당시 매곡리 관련 마을 사진>

1) 위 치

매곡1리에서 만도기계(주)가 있는 방향으로 1km정도 들어가 만도기계를 지나면 두갈래 길이 나오는데 좌측길은 배방면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길이 맹골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매곡2리는 매곡 1리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언덕을 경계로 나뉜다.

매곡3리의 위치는 매곡 2리 맞은 편으로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 도로에서는 마을을 볼 수 없을 만큼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만도기계가 있으며, 입구에서 400m 정도 들어가면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2) 현 황

인구분포에서는 맹골마을은 총 496명, 산풍터마을은 254명 가소지마을은 90명으로 가소지 마을이 현저하게 인구수가 떨어진다. 생업에서는 맹골마을이 총 146가구중 77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풍터 마을은 84가구중 42가구가 농가이며 가소지마을은 31가구중 21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가소지 마을이 1리, 2리 보다 농가 비율이 높다.

- 인구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맹골마을	496명	265명	231명
신풍터마을	254명	136명	118명
가소지마을	90명	50명	40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맹골마을	100%	53%	47%

신풍터마을	100%	50%	50%
가소지마을	100%	68%	32%

농경지 현황에서는 논은 맹골마을이 70ha로 가장 많고 밭은 32ha로 산풍터마을이 많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맹골마을	100ha	70ha	30ha
신풍터마을	83ha	51ha	32ha
가소지마을	42ha	20ha	22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렉터	양수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건조기
맹골마을	27	5	3	10	5	4	3
신풍터마을	19	5	1	16	5		2
가소지마을	20	7	52	9	13	1	1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기타
맹골마을	1개소	1대	1조	
신풍터마을	1개소	1대	1조	
가소지마을		1대	1조	

- 연령별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맹골마을	25	40	36	47	64	100	147	31	6
신풍터마을	10	15	14	37	38	50	60	28	2
가소지마을	4	13	10	6	8	7	23	12	3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윤씨	안씨	기타
맹골마을	18%	28%	8%			46%
신풍터마을	10%	29%	6%	6%		49%
가소지마을	16%	13%	13%	19%	19%	20%

- 학생분포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마을명				
맹골마을	20	15	19	5
신풍터마을	2	6	6	5
가소지마을	4	4	4	4

- 최고령자

맹골마을은 91세이신 이병석 할아버지이시고

신풍터마을은 89세의 박남규 할아버지이시며

가소지마을은 80세의 박준옥씨이다.

- 호당평균소득

맹골마을은 년/600만원

신풍터마을은 년/500만원

가소지마을은 년/500만원

3) 자연경관

탕정면에는 포도밭을 많이 볼수 있는데 도로를 계속 따라 가다보면 가소지마을과 산풍터 마을은 천안과 경계이며 맹골마을은 배방면 장재리와 닿는다.

4) 변 천

매곡리는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앞에 큰 들이 있으므로 매골, 변하여 맹골 또는 매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풍리, 가소리, 산직리, 계곡리를 병합하여 매곡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매곡리는 70년대가 가장 가구수가 많았었다고 하며 우봉이씨는 현재 15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 450년 전에 마을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의 이씨도 많이 살고 있다.

6) 지 명

·매화낙지 : 매화가 떨어지는 자리인데, 이곳이 명당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해보았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천덕사 : 이 절은 광덕사 스님의암자였다는 말도 있고 마곡사 스님의 암자였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 계신 스님의말로는 마곡사 스님의 암자였다고 한다. 원래 절은 지금 있는 자리의 뒤에 있는데 도둑이 너무 많아 앞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절이 생긴지는 500년이 넘으며 매우 영험한 돌불상이 절을 지키고 있다.

·5개의 우물 : 한 바가지의 양밖에 되지 않지만 한번 푸면 다시 한 바가지의 양의 물이 나온다. 한 여름에도 부족하지 않으며, 늘 같은 양을 유지한다. 매년 정월에 샘제사를 지내는데 샘이 있는 곳마다 시루떡을 놓고 시루의 모서리에 북어를 거꾸로 꽂아 제사 지낸다.

·맹 골 : 매곡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큰 들이 있다하여 매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맹골이라 함.

·가소지 : 맹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성재 곧상여봉 밑이 됨

·강 당 : 큰 뜸 동쪽에 있는 마을 강당이 있었음.

·문 안 : 맹골 뒤쪽에 붙은 마을 부자윤씨가 살 때 담을 넓게 둘러 싸고 대문을 닫았는데 그 안이 한 마을을 이루었다 함.

·벌 뜸 : 큰 뜸 서쪽 벌판에 있는 마을

·산직말 : 큰 뜸에 붙은 마을

·소룡골 : 벌뜸 위쪽 곧 문안 서쪽에 있는 마을

·신풍터 : 맹골 북동쪽에 있는 큰 마을

·양지편 : 벌뜸 위쪽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

·큰 뜸 : 매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

·삼봉산 : 매곡리 호산리 갈산리 경계에 붙어 있는 산으로 봉우리 세 개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매곡천 : 대동네와 월랑천과 율지내가 음봉면 덕지리에서 합항 탕정면 동산리와 매곡리를 거쳐 고교천에 유입되고 있음.

·방구렛들 : 맹골앞에 있는 너른들. 토양이 매우 비옥함.

·번갯들 : 신풍터 쪽에 있는 들

·강당골 : 신풍터 뒤에 있는 골짜기

·연 못 : 큰뜸과 벌뜸 사이에 있는 못 연을 심었음.

·숲거리 : 맹골 연못 앞에 있는 거리 숲이 우거졌음.

·가소지절 : 가소지에 있는 작은 절

7) 전 설

·효부정문이 있는데 우봉이씨에게 나라에서 세원준 것이다. 효부정문은 6대조 할머니의 지극한 효성으로 나라에서 세워준 것이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아침마다 물고기를 물고와서 그것을 씻어 부모님께 드린 것이 알려져 효부정문이 세워졌다고 한다 우봉이씨는 현재 이 마을에서 15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450년 이전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봉 이씨들은 많은 벼슬을 했는데 전사 벼슬과 11대조가 충청군수 등을 지내셨다 전해 오는 말로는 매곡1구터가 좋아서 한산 이씨와 우봉이씨가 서로 자리를 잡으려다가 타협보기를 글 재주로서 결정을 내고자 시합을 했는데 현재 우봉이씨들이 살고 있으니, 아마도 결과는 우봉이시가 이겼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듯 하다.

·문 안 : 부자 윤씨가 집을 짓는데 99칸 되는 큰 집을 짓고, 주위로 담을 넓게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라의 허락없이 100칸 집을 지을 수 없어 99 칸만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장자터 : 옛날에 부자가 살았는데 하인이 수백명이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인들을 얼마나 부려먹던지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 중이 그곳을 시주하러 들어갔는데 하인의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하인이 부어터져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링 손을 보여주면서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중이 내일 집뒤에 있는 산전을 파버리면 하인들이 편해질 것이라 하며 돌아갔는데, 다음날 하인들이 그곳에 가서 고랑을 만들어 놓은 후부터 그 부자집이 거짓말처럼 망해 버렸다고 한다.

·불 상 : 불당동에 사는 임씨가 이곳으로 나무하러 왔는데 불상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임씨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기에 이 돌이 무엇이 영험하냐며 도끼로 불상을 때려 귀를 잘랐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 갑자기 식구들이 쓰러지고 피부병을 앓고 있자 겁에 질린 임씨는 늦게나마 불상 앞에 가서 잘못을 뉘우치며 불상에게 빌어 화를 막았다.

·말고개 : 선문대가 있는 쪽으로 말고개가 있는데 말고개는 갈산리를 넘어가기 위해 만든 도로인데 그곳을 파는데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고 피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맹골마을은 윤씨가 음력 10월 보름에 시제를 지내며, 계는 연반계가 있는데 큰뜸, 벌뜸, 문반 서로 각자 이루어지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북놀이가 행해졌다. 음력 8월 15일 날에 수수깡 잎새를 뜯어 거북이를 만들어 저녁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렸다. 거북이를 만들려면 20일이라는 시간과 운반등 어려움이 있어 4년동안 군에서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없어졌다.

신풍터 마을에는 천주교 공소가 있는데 천주교는 1950년대에 들어와 지금은 마을의 40% 이상이 천주교신자이다. 한때는 마을의 산신제를 지냈는데 제사때마다 돈을 걷기로 되어 있는데 미신이라 해서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의 반대로 산제사가 없어졌다. 계는 연반계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포도축제가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96년도에 금상을 97년도에는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마을 포도맛이 일품이라 한다.

가소지마을에는 산신제와 길제사가 있었는데 미신이라 하여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 마을 입

구에 있던 한때 길제사를 지냈던 바위도 도로가 포장되면서 땅에 파묻혀 없어졌다고 한다.
매곡리 3개리 모두 부녀회와 청년회 주관으로 경로잔치, 효도관광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이마을에는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10) 종교단체
·매곡성결교회 - 탕정면 매곡리609 목사 유성재 신도수 300명 성결
·천덕사 - 탕정면 매곡3리 21-3 주지 변종철 신도수 100명 본원종
·매곡공소 - 탕정면 매곡2리 139-3 회장 윤두영 신도수 125명
11) 공장현황
·만도기계(주) - 대표 : 정몽원 매곡 산6-3 자동차 엔진 부품 에어콘 허가일 : 92.3.13
면적 : 토지 145,523 건물 133,091.54 종업원수 1540
·대광도예 대표 김영석 매곡 673-1 도자기 허가일 93.5.31 토지526 건물196
12) 마을특성
매곡리는 2000년된 느릅나무가 있는데 부채꼴형으로 멋지게 자라고 있으며 포도축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포도맛이 일품이다.